

# 광주교도소 교도관 확진 후 수용자 감염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확산 차단 못해 직원·수용자 전수조사 시급...추가검사도

광주지역 코로나19 4차 유행을 촉발한 광주교도소발 확진 사태가 결국 수용자에게도 이어졌다.

특히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수용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감염을 피하지는 못했다.

23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선별진료소에서 전남 시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수용자 2명이 양성 반응이 나

와 광주 615번과 618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주교도소는 이날 9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원 495명과 수용자 36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직원 3명, 수용자 2명 등 모두 5명이 확진 됐다.

확진된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 별도 공간에 격리 중이다. 그와 접촉한 동료

수용자와 교도소 직원도 격리 조치됐다. 혼거실·독거실에서 생활 중인 수용자들은 취침과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다.

실제 역학조사관이 교정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확진자 동선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에게 빨아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자체 확보하거나 기부받은 일회용 마스크도 제공하고 있다.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 지급하지는 않지만 병원, 법원 등으로 외출할 때는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한 뒤 버리게끔 하

고 있다.

혼거실 생활을 하는 수용자가 많은 만큼 매일 두 차례 소독 방역도 한다.

그러나 단체 생활을 하는 교도소 특성상 한 번 뿔리면 연쇄 감염 우려를 피할 수 없다.

그동안 무증상 감염자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수조사 및 강화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교도소 전체 수용자는 1,995명이다. 2015년 이전한 광주교도소는 다른 교도소보다는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3~5명(중방), 8~10명(대거실)의 수용자들이 한방에서 거주한다.

확진된 수용자는 5명 정원 방에서 총

4명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은 지난 2월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사례 이후 국내 두 번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1~22일 교도소 직원 49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다. 확진된 직원과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 365명을 우선 검사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3명, 전남 6명 등 모두 9명이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11일 이후 12일 만이다.

/김영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0~12	흑산도	9~13
담양	0~12	구례	-1~13
화순	0~12	곡성	-1~12
영광	1~11	완도	5~13
함평	1~12	강진	3~13
무안	3~11	장흥	2~13
영암	1~12	해남	2~12
진도	4~12	고흥	2~13
신안	4~12	보성	0~12

일출 07:16 일몰 17:22  
월출 14:28 월몰 01:19

목포	만조 09:39 22:16	여수	만조 05:07 17:39
	간조 03:00 15:09		간조 10:51 23:57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전남대병원 비대면 진료 시작

### 내일부터 응급실 제한·외래 진료는 26일부터

전남대병원이 원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23일 오전부터 비대면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

비대면 진료는 각 진료과에서 처방대상자를 선별해 의료진이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 자신이 지정한 약국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어, 병원 본관에서 잠시간 줄을 서서 처방전을 받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다만 당분간 초진 환자의 진료는 받지 않는다.

병원 측은 원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호전되면 오는 25일부터 제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시작하고, 대면 외

래 진료는 2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경우 26일부터는 병원 전체가 정상 운영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13일 신경외과 전공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입주업체 종사자, 광주교도소 직원 등 모두 60여명이 확진됐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본원 1동 병실 전체는 지난 17일부터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됐으며, 간호사가 추가로 확진된 7동 역시 1~2층에 근무했던 접촉자들이 자가 격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23일 오후 광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두환씨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태규 기자

## ‘전두환 엄벌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 30일 선고 공판...시민들 염원 재판부에 전달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엄벌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사회·종교단체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린다.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23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

청 별관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씨 선고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합의했다.

우선 전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만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먼저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평위는 오는 24일 광주 남구 소화 자매원에서 열리는 쌀 나눔 행사를 계기로 전씨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은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은 광주시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5·18재단 등 5·18 관련 단체는 일정을 논의해 릴레이 기자회견에 동참할 계획이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

영대 신부는 “광주의 역사적인 재판을 앞두고 시민들의 합쳐진 힘을 표출해내는 취지”라며 “이번 재판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열망과 정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중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종찬 기자

## 보이스피싱 수금액 50대 입건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넘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액에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부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건네받은 돈을 총액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동구 학동의 병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2,800만원을 총액에 전달한 혐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보이스피싱 수금액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구직 커뮤니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 글을 보고 연락,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액에 피해금을 송금할 때마다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 카드 이용 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김종찬 기자

## 순환도로서 6중 추돌...5명 경상

23일 오전 8시 27분께 북구 두암동 인근 광주 2순환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나면서 일부 차량은 앞 뒤차에 끼여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주변 도로는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종찬 기자

역량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합니다.

# 신춘 문예

**공모부문 및 시상 내역**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5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당선작 1편, 상금 200만원)

**접수마감**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보내실곳**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전남매일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응모작은 신문·잡지·단행본 등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같은 작품을 다른 신춘문예 공모에 중복 응모했을 경우에는 낙선 처리됨.
- 봉투 겉면에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 이라 쓰고, 작품 편수를 반드시 명기.
- 원고 접수시 맨 뒷장에 성명(필명일 경우 본명 기재), 전화번호, 주소 명기.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 062) 720-1071~2

주최 : **M 전남매일**

후원 : **(재) 골드클래스문화재단**

제2회 전남매일 신춘문예 ‘골드문학상’ 공모